

조명훈 학우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하라

학교는 지난 8월 18일, 조명훈 학우(영 어과 4)에 대한 무기정학 방침을 확정 공고했다.

학교는 “허위사실”을 수시 응시생과 학부모에게 유포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징계 사유로 들고 있다. 당시 조명훈 학우가 배포한 유인물엔 총장의 노동조합 탄압 실태와 보직교수들의 폭력 및 성희롱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선 우리는 학교가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초유의 사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에도 학교가 표현물의 내용을 갖고 학생을 징계한 경우는 없었다. 조명훈 학우에 대한 학교의 징계는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

학교가 보직교수들의 폭력 및 성희롱 행태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노동조합은 사진 자료와 증인 등을 통해 그것이 “사실”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보직교수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 및 국가인권위 제소가 이뤄진 상태다. 그렇다면 학교는 폭력과 성희롱 사실을 알린 학생에게 징계부터 할 것이 아니라, 폭력과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보직교수들에 대한 진상 조사부터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과연 조명훈 학우에게 “명예 훼손”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학교는 지금까지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앞세워 노동조합을 폭력 집단으로 매도해왔다. 매호 수백만 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내용은 학교에 유리한 내용이니 명예훼손이 아니고, 조명훈 학우가 뿌린 유인물 1,500장은 학교에 불리한 내용이니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명백히 이중잣대다.

표적 징계

학교는 단지 유인물 배포만을 문제삼아 징계했던 것이 아니다. 조명훈 학우가 “그동안 노조사무실에서 실제적인 업무



부당한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조명훈 학우

를 도우는 등 직원노조와 파업활동을 공조해 온 인물”(《한국대학신문》8월 17일치)이라며 이번 징계가 조명훈 학우의 파업지지 활동을 표적삼아 내린 징계임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학교의 이런 징계 시도가 알려지자마자, 학교 안팎으로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내 10여 개의 학생 대표자 및 학생 단체들, 그리고 노동조합이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교 비깅에선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장송희 한총련 의장, 박노자 씨를 비롯해 교수노조,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에서 징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박철 총장은 이런 학내외의 비판 목소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무기정학이란 중징계를 강행했다.

우리는 조명훈 학우에 대한 외대 당국의 징계 조치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반교육적·반지성적 폭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외대 당국의 부당한 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싸울 것이다. 외대 당국은 학교 안팎의 징계 철회 요구를 귀담아 듣고 조명훈 학생에 대한 부당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징계반대의 목소리



진보적 지식인 박노자의 편지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억박지르는 스승이란
이미 스승의 자격을 상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때 출강했던 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니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학교의 이와 같은 처사에 대해 뭐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의 이성적인 대화 대신에 행정력, 즉 “힘”에 기대서 상대방에게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억박지르는 스승이란 이미 스승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학교답게 되려면 그 안에서의 구성원의 소통이 합리성과 이성에 의거해야지 행정력을 갖고 학생들과 “싸움”한다는 것은 학교로서의 자격 포기라고 봐야지요. ... 징계 반대 투쟁에서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징계반대 목소리는 3, 4면에 계속됩니다.

피해 조합원들이 전하는

보직 교수 폭력 · 성희롱의 진실

학교는 조명훈 학우가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보직교수들의 폭력과 성희롱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에 있었던 보직교수들의 조합원 폭행 및 성희롱 사건은 조명훈 학우가 노동조합을 통해 얻은 사진 자료와 피해자들의 증언에 기초해 확인한 내용이다. 더군다나 폭행 및 성희롱 피해자들 자신이 보직교수들을 경찰에 고소·고발하고 국가인권위에 제소했을 정도로 결코 쉽게 지나칠 내용들이 아니다. 다음은 피해 조합원들이 전하는 당시 상황이다.

폭력

“6월 26일, 노동조합 차원의 통상적 부서 순회기간이던 중이었어요. 한 손에 디지털 카메라를 든 보직교수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조합원들의 얼굴을 찍기 시작했지요. 조합원들이 팻말로 얼굴을 가리자 이영태 용인캠퍼스 학생지원처장은 갑자기 팻말을 걷어치우더니 한 조합원의 뺨을 후려치지 뭐예요. 이에 격분한 조합원들과 보직교수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와중에 소병국 총무처장은 남성 조합원의 얼굴에 주먹질을 하고 여성 조합원의 머리채를 잡아 뒤흔들기도 했어요.”

당시 소병국 총무처장의 주먹질은 사진에 찍혔는데, 징계위원이었던 정경원 교무처장은 이런 명백한 사진을 두고도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 폭행 가해자인 소병국 총무처장은 어이없게도 이 사실을 알린 조명훈 학우에게 전화해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조명훈 학우가 불인 대자보와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해버렸다.

한편, 여성 조합원들이 전하는 보직교



수들의 성희롱 사건은 더 심각하다.

피해 여성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영태 용인캠퍼스 학생처장은 여성 조합원들에게 “기슴 보여. 거기나 달고 다녀”, “예쁜 것하고 말하니 말도 잘 나오네”라는 명백히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고, 소병국 총무처장은 여성 조합원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으며 조롱하기도 했다고 한다.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피해 여성들은 고소·고발까지 가기를 꺼려했는데, 이때문에 학교는 이 발언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폭로한 조명훈 학우에게 “허위사실 유포”라며 입막음하려 했던 듯하다.

그러나 학교의 학생 징계 소식을 들은 피해 여성들은 국가인권위에 이 사건을 제소하기로 결심했고, 징계위원회 당일 이 소식을 들은 징계위원들은 짐짓 놀란 눈치였다. 그러면서 장봉익 서울캠퍼스 학생처장은 “예쁜 것하고 말하니 말도 잘 나오네.”란 발언이 성희롱이 아니냐는 조명훈 학우의 질문에 “기본 좋게 들을 수 있는 발언”이라는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사실상 성희롱 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학교의 처부

학교는 조명훈 학우에 대한 징계를 통해 학교의 처부를 가리려 했던 듯하다. 그러나 징계는 오히려 학교의 처부를 더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학교는 보직교수들의 폭력과 성희롱 사건을 폭로한 학생을 징계해 진실을 은폐하려 할 것이 아니라, 폭력·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교수들부터 진상 조사해야 한다.

보직교수들의 말 말 말

“기슴 보여. 거기나 달고 다녀.” - 이영태 용인캠퍼스 학생처장

“예쁜 것하고 말하니 말도 잘 나오네.” - 이영태 용인캠퍼스 학생처장

“예쁜 것하고 말하니 말도 잘 나오네”가 성희롱이 아니냐는 조명훈 학우의 질문에 “기본 좋게 들을 수 있는 발언” - 장봉익 서울캠퍼스 학생처장

“아니 그건 성희롱은 맞는데.....” - 뒤늦게 수습하려는 정경원 교무처장

“이건 폭력이 아니야” - 정경원 교무처장, 주먹질을 하는 소병국 총무처장의 사진을 두고

(조합원들에게) “쫓배리”, “개새끼”, “내가 너 반드시 감방에 보낼꺼야!” - 소병국 총무처장

(조합원들에게) “넌 생양아치야!”, “넌 한방이면 죽어!” - 이영태 용인캠퍼스 학생처장

학생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한 졸속적 징계절차

이번 징계는 내용상 부당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절차상으로도 매우 졸속적인 과정을 통해 치러졌다.

징계 과정에서 학교는 단과대학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를 서울캠퍼스 차원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리했다. 이것은 명백히 학생징계규정 위반이다. 규정위반까지 하면서 서울캠퍼스 차원의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학교가 조명훈 학우를 단과대학장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규정 위반

더군다나 조명훈 학우에 대한 징계를 결

정한 징계위원회는 서울캠퍼스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규정대로라면 서울캠퍼스 징계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 교무처장, 단과대학장”이 되는 것이지만, 영어대 학장이 외국 출장 중이어서 없는 데도 급히 서양어대 학장을 대신 징계위원으로 선임했다. 규정에도 없는 ‘위임’을 한 것이다. 학교는 개강하기 전, 하루라도 빨리 조명훈 학우를 징계해야 한다는 데 급급해 졸속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진행했던 것이다.

학교는 징계당사자에게 8월 8일 오전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바로 전날 오후야, 그것도 핸드폰으로 알렸다. 그마저도 징계위원회 간사(학생지원과장)를

통한 것이었고, 그는 징계 사유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조명훈 학우는 곧바로 징계위원장(학생지원처장)에게 전화해 한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징계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할 수 있냐고 항의했다. 그리고 모든 징계절차를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개강 이후로 연기해줄 것과 징계사유를 문서를 통해 공지할 것을 요구했다.

묵묵부답

그러나 징계위원들은 제대로 된 문서 한 장 발송하지 않은 채, 겨우 3일 뒤로 징계위원회 소집을 확정했다. 심지어 “소명할

기회를 안줄 수도 있는데 주는 것”이며 “징계 대상자가 안와도 징계는 진행된다”고 협박했다.

징계위원회 당일에도, 조명훈 학우는 사법재판에서도 공개재판의 원칙이 있는 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께 온 학우들이 함께 징계위원회 방청을 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조차 거절당했다.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에도 조명훈 학우는 징계위원회 결정을 알 수 없었다. 징계위원회 간사에게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몇 시간 뒤, 인터넷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서 무기징학 징계가 잠정 결정됐음을 알 수 있었다.

8월 18일 총장의 결재를 통해 징계가 확정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학교는 징계 당사자에게 일언반구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 결과를 공지했다. 며칠 뒤 집에 도착한 징계 통보 우편이 지금껏 징계와 관련해 학교로부터 받은, 유일한 공문이었다.

징계자 조명훈이 말한다

“부당한 징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유인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학교의 이러한 탄압을 좌시한다면 앞으로 외대 학생들은 학교를 비판하는 정당한 주장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백만 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보수언론 <조선일보>를 통해 외대 노동자들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한 학교가 폭력 · 성희롱 보직교수들을 비판한 유인물 겨우 1,500장을 가지고 학생을 징계하겠다는 것 자체가 낡은 습관입니다.

학교는 학교를 비판한 유인물을 뿌린 제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지만, 사실 진정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쪽은 120일 넘도록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박철 총장과 폭력 · 성희롱까지 일삼은 보직교수들입니다. 진짜 징계가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아니라 바로 이들입니다.

사람들은 수시생들한테 왜 뿌렸냐고, 민감한 시기에 학생들에게 좋은 이미지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거 뿌려서 왜 명예를 실추시키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후배들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학교의 치부를 숨기고 좋은 학교인냥 얘기하는 그런 뻔뻔스런 선배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한 치도 부끄럼이 없습니다. 저에 대한 학교의 징계가 왜 부당한지, 그리고 진정 징계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명 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조명훈 학우

징계반대의 목소리

인권 단체 연석회의의 징계 반대 성명서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

한국외국어대(이하 외대) 징계위원회는 ‘허위 유인물 배포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교(害校)행위를 했다’며 영어과 4학년 조명훈씨에 대해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중략)

하지만 사건 자체의 “허위 사실”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털썩 학생부터 징계하기로 결정한 외대당국의 처사는 이해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진리 탐구의 상아탑”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가장 완벽하게 보장해야 할 대학이, 학교 당국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교육의 정신을 망각한 처사이고 명백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중략)

우리는 지난 봄 고대생 7명에 대한 고대당국의 강제출교 사태 때에도 강력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일부 사립대학들이 학생회의 활동을 억압하여 위축시키며, 학생을 학교의 당연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징계만을 남발하는 모습에 실망하며,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번 외대학생 조명훈씨의 경우 역시, 대학의 주체인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만약 징계가 확정된다면 외대 학생들은 대자보 한 장, 유인물 하나를 만들 때도 스스로 검열하게 될 것이고, 대학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오랜시간 노력해 온 37개 인권단체들

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외대당국에게 학교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당한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그동안 한국 사회 발전과 학문연구를 위해 애써온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외대당국이 조명훈씨에게 내린 부당한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외대대학노조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성명서

한국외대는 성희롱 사태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학생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2006년 3월 14일 일방적으로 단협해지를 통보해 오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파면, 해고, 정직 등의 중징계 강행하며 노조탄압을 일삼아 왔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여성의 머리채

를 휘어잡고 흔드는 등 끔찍한 폭력을 자행하였다.

이도 모자라 여성조합원에게 성희롱을 자행하였고,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성희롱인지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희롱을 성희롱’이라고

말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하였다. (중략)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성희롱과 이에 대한 2차 가해, 학생에 대한 부당징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상아탑이라는 대학 당국에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 각계각층의 여성들과 연대하여 기필코 여성을 무시하고 짓밟는 성희롱과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

부당한 학생징계를 철회하고 직원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라!

지난 8월 11일(금)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당국의 학생 징계 사태를 보며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직원 노동조합 파업을 지지하고 보직교수들의 행태를 유인물로 제작·배포해 비판한 것이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비판정신과 다양성을 포용해야 하는 대학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징계는 학교당국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학생에 대한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이는 심각한 노동 기본권 침해이자 학생 인권에 대한 억압이 아닐 수 없다.

(중략)
더욱이 이번 학생 징계의 근본적 원인은 다름 아닌 130여일에 가까운 직원노조의 파업을 부당하게 진압하려는 학교당국의 태도에 있다. 교수노조는 한국외대 직원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학교당국이 얼마나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진행하였는지 잘 알고 있다. 조합원탈퇴 종용, 부당한 교섭거부, 불법징계, 고소고발 등이 그러하다.

(중략)
대학개혁과 학원민주화를 지향하는 교

수노조는 금번 학생에 대한 부당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과 향후 더 이상 대학에서 표현과 비판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나아가 현재

진행되는 직원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조속히 중단하고 바람직하게 파업사태를 해결하여 진정한 고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

조명훈 학생에 대한 부당한 징계방침 철회 요구 연서에 참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

〈민주노동당〉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강병기, 김기수, 김은진, 박인숙, 이해삼, 홍승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동대문구 위원회

〈사회운동단체〉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외대노조자기파업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단체〉 조준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이광우 공무원노조 강원본부장

〈학생단체〉 장송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이주희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 조용신 민주노동당 서울시학생위원장/ 강정남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강동기 21세기서울지역대학생연합의장



방학중에 열린 징계철회 학내 집회. 3차례 열린 방중 집회엔 최대 240여 명의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징계반대 성명에 동참한 학내 단체 및 개인

서양어대 학생회장 신영섭, 사회대 학생회장 김이리, 언론정보학부 학생회장 한동오, 행정학과 학생회장 이은지, 독일어과 학생회장 김준희, 영어교육과 학생회장이준일 /

대학원 총학생회, 민주노동당 외대 학생위원회,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문예갈래협의회, 생활도서관, 민중미학연구회, 휴머니즘, 정의과 편집위원회, 스페인어과 사회과학학회 SH, 다함께 외대모임, 외대노동조합, 스페인어과 학생회장단 모임

함께 합시다!

징계에 반대한다면, 이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생식당 앞에서 조명훈 학우 징계철회를 위한 서명을 받습니다. 징계에 반대하는 모든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인 명의의, 혹은 자신이 속한 과, 동아리, 학생회의 징계 반대 입장을 발표해주세요.

- 간단한 글이라도 좋으니 징계 반대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myownlife@hanmail.net

- 조명훈 학우에게 지지와 격려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011-9744-1561

- 징계반대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제일은행
132-20-661393(여승주)

- 조명훈 학우 징계 철회 대책위에 함께할 단체를 찾습니다.

'조명훈 학우 징계 철회 대책위'는 부당한 징계를 철회시키기 위해 대자보 제작, 유인물 배포, 서명 운동, 학내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조명훈 학우에 대한 학교 당국의 징계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를 환영합니다(문의/연락 : 양재우 011-9937-1755)

※ 지지 문자와 메일 보내주신 학우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8월 16일 KBS2 <시사투나잇> 아직 못보신 분들 꼭 보세요!

조명훈 학우 부당 징계 철회를 위한 행동의 날

8월 31일(목) 오후 2시 붉은광장으로!

징계 철회를 바라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